

TV 7일

★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⑥ 50 굿모닝! 채널A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박종진의 쾌도난마(재)	50 인간극장		0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사랑했나니〉	05 KBC 뉴스자금 30 모닝와이드 3부
⑧ 50 김부장의 경제특급(재)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나라에서 좋다〉
⑨ 50 신문으로 보는 세상	30 KBS 뉴스	00 TV 소설 〈사랑아 사랑아〉 40 여유민만	30 MBC 뉴스특보 2012 미국 대통령 선거 1부	10 SBS 뉴스특보 2012 美 대통령 선거 1~6부
⑩ 40 이영돈 PD, 논리로 풀다(재)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 세상	50 지구촌 뉴스		
⑪ 50 채널 A 뉴스	00 교실이야기 55 바른말 고운말	10 스포츠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수목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척한남자〉(재)	00 2012 특별생방송 〈맛있는 나눔 사랑의 푸드뱅크〉	
⑫ 10 월메지?(재) 40 분노왕(재)	00 KBS 뉴스 12		10 MBC 뉴스특보 2012 미국 대통령 선거 2~4부	
① 50 박상규의 대선스티일	00 KBS 갈작선 〈영광의 재인〉(재)			
② 50 이언경의 세상만사	00 KBS 뉴스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비티민(재)		
③ 50 이언경의 대선만사	00 아름다운 사람들(재) 10 글로벌 성공시대(재)	00 오감민족 세상은 맛있다(재) 30 MBC 뉴스스타임 35 말하기가 좋은(재)	10 키즈 어드벤처 여기 가 어디야? 베스트	
④ 50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모자이크·청원〉	00 파워 마스크(재) 30 TV 유치원	00 뽀뽀뽀 아이조아 30 안녕 토토비	00 안녕 자두아 2 30 꾸러기 탐구생활
⑤	00 KBS 뉴스 5 20 동물들의 세계 40 날도지오그래피	00 두리동식 물계공항 15 빠뿌아 돌자 30 청진기	00 MBC 이브닝 뉴스 30 생방송 투데이 1~2부	
⑥ 00 스포츠 베트맨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질문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20 생방송 전국시대	
⑦ 30 관찰카메라 24시간(재)	00 KBS 뉴스 7 30 스카우트	45 일일시트콤 〈닥치고 패밀리〉	15 일일연속극 〈그대 없인 못살아〉 55 MBC 뉴스스코	20 일일드라마 〈그래도 당신〉
⑧ 40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재)	25 일일연속극 〈힘내요 미스터김〉	20 오감마족 세상은 맛있다 50 비티민	50 MBC 스페셜 〈글든타임은 있다. 외상센터, 한 달간의 기록〉	0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45 달씨와 생활 50 한밤의 TV 연예
⑨ 50 뉴스A	00 KBS 뉴스 9		55 수목미니시리즈 〈보고싶다〉	55 SBS 대기획 〈대풍수〉
⑩	00 환경스페셜 50 아름다운 사람들	00 수목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척한남자〉		
⑪ 00 분노왕	00 KBS 뉴스라인 40 2012 미대선 특집 〈미국의 선택과 한반도〉	20 추적 60분	30 황금어장	15 짹
⑫ 10 박종진의 쾌도난마(재) ①:20 판관포청전 2012(재)	30 KBS 뉴스 40 클래식 오디세이 ①:30 환경스페셜	20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세상의 모든 다큐	50 MBC 뉴스 24 ①:10 자원봉사 사회망프로젝트 〈니누면 행복 스페셜〉	35 니어트라인



## “매번 마지막이라는 간절함으로 노래해요”

### ‘슈퍼스타K 4’ 톱 4

오디션 프로그램의 대표주자 엠넷 ‘슈퍼스타K 4’ 톱 4 진출자들이 치열한 경쟁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놓았다.

이들은 6일 영등포 타임스퀘어 엠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매 라운드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다”고 입을 모았다.

로이킴(본명 김상우·19)은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오게 돼서 국민께 감사하다”며 “매 무대 다른 모습을 보여 드리려 노력했는데 잘 보여진 것 같아서 톱 4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리허설 때보다 생방송 때 더 잘하는 것 같다”는 그는 “생방송 무대에 올리기엔 다 잊어버리고 무대만 생각한다. 그 집중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정준영(28) 역시 최종예선인 슈퍼위크 때

부터 매 라운드 살아남는 게 목표였다며 지금까지 올 수 있던 원동력으로 적응력을 꼽았다.

그는 “단체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난 적응을 잘 했다”며 “朴素소에 특이한 애들이 많아서 적응하기 편했고, 정말 재미있었다”고 밝혔다.

홍대광(28)은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 ‘이번엔 떨어지겠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이들의 소감에서 알 수 있듯이 시즌 4는 예전 시즌보다 유독 훈련 양상을 보인다.

로이킴은 “무대마다 견제 대상이 바뀐다”며 “시청자 입장에서 시즌 1~3를 보면서 ‘이 사람이 올라가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은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승우가 끝까지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 탓락하는 걸 보면서 쉽게 생각해서 갈 수 있는 오디션은 아닌 것 같다”고

느꼈다”며 “무대마다 질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톱 4 가운데 유일한 밴드 딕펑스는 “슈퍼위크” 때 잘하는 밴드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돼 부담감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톱 4 가운데 로이킴과 정준영은 준수한 외모와 개성으로 일찌감치 팬층을 확보했다.

막걸리업체 회장 아들로 미국의 명문대 조지타운대학교에 재학 중인 로이킴은 ‘엄친이’ 이미지에 대해 “엄친이란 단어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른다”며 웃었다.

그는 “다만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린 시청자 분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자신을 낮췄다.

정준영과 함께 여성팬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그는 자신과 정준영이 윙동하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밝혔다.

홍대광은 어머니가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 허열을 느낀다고 했다.

/연합뉴스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7일(음 9월 24일 壬申)

**卯** 36년생 객관성과 정확성이 필요하다. 48년생 만반의 준비 후 실천해야 효과를 본다. 60년생 요체를 파악해야 해 결할 수 있다. 72년생 등기 부여가 절실한 때다. 84년생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30, 79

**辰** 37년생 우연한 행운이 길들겠다. 49년생 기다려왔던 것을 실행해야 할 적기이다. 61년생 착오가 큰 것을 잊게 할 수도 있다. 73년생 상대로부터 인정받게 되리라. 85년생 공들여왔던 것이 기다리 잡힌다. 행운의 숫자 : 48, 86

**巳** 38년생 체면 보다는 실리를 주구하는 것이 더 낫다. 50년생 이해하기 힘든 원인의 장애로 인해 답답하겠다. 62년생 전문성의 확보가 절실했을 때다. 74년생 공개적인 언행은 상대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7, 56

**午** 39년생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51년생 중지지를 모았을 때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다. 63년생 방심한다면 호기와 악재로 변하리라. 75년생 모색했을 때 고민은 쉽게 풀리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64, 07

**未** 40년생 가다듬고 살펴야 추진력을 갖게 된다. 52년생 실재적이지 않다면 소용이 없다. 64년생 예리한 시각으로 맹점을 찾아내야만 개선되느니라. 76년생 대비하고 있지 않다면 기회가 와도 취할 수 없다. 행운의 숫자 : 72, 89

**申** 41년생 길성이 비추고 있으니 경사가 나겠다. 53년생 최선을 다 해야 근사치에 임박하리라. 65년생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깨달음이 있다. 77년생 인간관계로 인해서 불편한 일이 생길 수다. 행운의 숫자 : 01, 12

45년생 형편에 맞게 처신해야만 감당할 수 있다. 57년생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겠다. 69년생 정확한 목적의식과 실행이 성공의 길로 이끈다. 81년생 예리한 관점으로 임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50, 54

**酉** 46년생 운동 집중해야 하느니라. 58년생 대의를 위한 발언의 용기가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70년생 개별적 고찰과 확인만이 옳은 판단을 낳으리라. 82년생 가능성이 없다면 아예 시도하지 않는 편이 낫다. 행운의 숫자 : 63, 78

**戌** 47년생 속단하면 부화뇌동한다는 평을 듣는다. 59년생 사소한 불편에 대해서는 대범하게 넘어가자. 71년생 큰 것은 놓치고 작은 것만 붙잡고 있는 모양새다. 83년생 여유 있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71, 93

**亥** 42년생 임시 상황임을 참고하자. 54년생 추진하고자 했던 일은 문제없이 진행되겠다. 66년생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몇에 걸려드는 아픔이 있다. 78년생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니 관리를 잘 하자. 행운의 숫자 : 82, 29

**子** 43년생 이인이 보이니 주저하지 말고 밀어붙이자. 55년생 심리 조절이 성패를 좌우한다. 67년생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79년생 중용을 갖지 않는다면 거센 반발이 일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8, 38

**丑** 44년생 때는 아직 이르지만 숨통이 터졌다. 56년생 겸손 구름 사이로 밝은 햇살이 비친다. 68년생 진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상한 입장이 되는 법이다. 80년생 감정을 제어할 수 있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13, 45

**寅** 45년생 형편에 맞게 처신해야만 감당할 수 있다. 57년생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겠다. 69년생 정확한 목적의식과 실행이 성공의 길로 이끈다. 81년생 예리한 관점으로 임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50, 54

**巳** 46년생 운동 집중해야 하느니라. 58년생 대의를 위한 발언의 용기가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70년생 개별적 고찰과 확인만이 옳은 판단을 낳으리라. 82년생 가능성이 없다면 아예 시도하지 않는 편이 낫다. 행운의 숫자 : 63, 78

**午** 47년생 속단하면 부화뇌동한다는 평을 듣는다. 59년생 사소한 불편에 대해서는 대범하게 넘어가자. 71년생 큰 것은 놓치고 작은 것만 붙잡고 있는 모양새다. 83년생 여유 있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71, 9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 010-9790-8237

굿모닝 잉글리쉬	한자이야기	니하오 쟁구워	오하요우 니흔고	
I'm up to my ears in work 할 일이 너무 많이 쌓였거든요	徙宅忘妻(사택망처) 옮길 사, 집 택, 잊을 맘, 아래 처	嘗禁果 chángjìnguǒ 금지된 사과를 맛보다	私は紹介してください。 저 좀 소개시켜줘요	
A : If you're free tomorrow, I would like to invite you to dinner. B : I'd love to come but I can't. I'm up to my ears in work. A : How about next Monday? B : That shouldn't be any problem.	사택망처(徙宅忘妻)란 ‘집을 옮기며 아래를 잊어버린다.’라는 뜻으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소중한 것을 잊어버린다는 말이다. 노(魯)나라의 왕 애공은 일을 할 때 아래를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한 공자의 말처럼 그만 얼빠진 사람이 있는지 공자에게 물어보았다. 그래서 공자는 “하왕조의 마지막 왕인 주왕은 포악한 정치를 한 임금의 전형으로 응당한 짓을 할부로 하고 부도덕하였으며 백성의 생활과 국가의 중대한 일을 돌보지 않고 악독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백성을 억압하였으며 현신들의 간언을 듣지 않고 그들을 추방하였습니다. 폭군이었던 결왕과 주왕은 계속 악행을 저질러 나라를 맘치고 나라와 백성, 자기 자신도 잊어버린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세상을 바꾼 사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에게서 해방을 달하는 애멘동산의 사과, 예술 혁명을 이룬 세잔의 사과, 민중혁명을 이끈 빌헬름 텔의 사과, 과학혁명을 이끈 뉴튼의 사과.	A : この写真的眞ん中の人が、一体誰ですか。 B : ハハ、どうですか。気に入りましたか。 A : 本当にタレントみたいですね。 私は紹介してください。 B : この子は写真写りがいいだけなんですか。 実際に見たらがっかりすると思いますよ。	
A : 내일 시간이 있으시면, 점심을 대접하고 싶은데요. B : 그리고 싶습니다만 안될 것 같군요. 할 일이 너무 많이 쌓였거든요. A : 다음 주 월요일은 어때요? B : 그렇다면 문제될 건 하나도 없을 것 같네요.	[출전] 『공자기어(孔子家語)』 〈현군편(賢君篇)〉	아담과 하와가 계율을 어기고 따 먹음으로써 원죄를 범하였다는 선악과를 중국어로 禁果 jìnguǒ(금지된 사과)라고 합니다. 禁果에 ‘맛보다(嘗)’ 혹은 ‘먹다(吃)’라는 단어를 붙이면 혼전 성관계를 나타냅니다. 우리말의 속도위반만을 팔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의 성관계까지도 표현하는 말로 쓰입니다.	A : 이 사진 가운데 있는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B : 하하. 왜요. 마음에 드나요? A : 정말 멀吕布 같아요. 저 좀 소개시켜줘요. B : 애, 사진발이 좋을 뿐이에요. 실제로 보면 실망할 걸요.	
* I'm up to my ears in work. = I'm up to my work. * 피곤하게 봐는데. 귀가하지 그래. = You look tired. Why don't you go on home?		아담과 하와가 계율을 어기고 따 먹음으로써 원죄를 범하였다는 선악과를 중국어로 禁果 jìnguǒ(금지된 사과)라고 합니다. 禁果에 ‘맛보다(嘗)’ 혹은 ‘먹다(吃)’라는 단어를 붙이면 혼전 성관계를 나타냅니다. 우리말의 속도위반만을 팔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의 성관계까지도 표현하는 말로 쓰입니다.	真(ま)ん中(なか) 一体(いったい) 気(き)に入(い)る がっかりする	한 가운데 도대체 마음에 들다 실망하다